

# 行政現象의 說明, 解釋, 批判

姜 信 澤\*

〈目 次〉	
I. 序 論	界에 대한 見解
II.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說明과 豫測	IV. 說明·解釋·批判
III. 「科學的 說明」의 限	V. 結 論

## 〈요 약〉

이 글은 「설명 해석 비판」을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절충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본 하나의 試論이다. 그 철학적 배경과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 때문에 과학적 설명과 해석학이나 비판이론의 견해들은 서로 절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行政現象이라고 하는 複合的 對象의 연구와 실천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모두가 유용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소위 主流社會科學方法論에서 주장하는 演繹的-法則的 說明論證의 구성요소와 형식 및 조건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社會科學의 기본과정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說明-解釋-批判을 部分-脈絡-上位脈絡間的 관계로 놓고 보았으며 그것들은 행정학에 있어서 實踐으로서의 政策形成에 모두 적실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政策이 目的과 手段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批判이 목적선택에 도움이 되고 說明과 豫測이 因果關係의 假定에 관한 一般化된 지식으로서의 手段을 제공하여 解釋이 對話를 통한 實踐方案의 구성에 도움을 주리라는 것이다.

## I. 序 論

이 글은 소위 「主流社會科學方法論」(Main-Stream Social Science Methodology)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중에서 「科學的 說明과 豫測」에 관련된 해석학과 비판이론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행정현상의 설명·해석·비판에 도움을 얻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社會科學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說明」「解釋」「批判」의 각각 哲學的 背景을 달리하는 것이며 상호 논쟁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하나의 見地에서 다른 입장을 바라보면 모두가 非正常的이거나 不當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마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보고자 하는 試圖은 절충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비록 그와 같은 試圖> 절충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行政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眼目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아리에서는 科學的 說明과 豫測에 관한 科學哲學의 「傳統的」인 생각을 간단히 서술한 다음에 그와 같은 과학적 설명의 설명방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社會科學說明의 특수성에 관한 見解에 관하여 언급하고 나서 解釋學과 批判理論의 見解의 일부분을 검토함으로써 行政現象의 설명·해석 그리고 비판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解釋學과 批判理論이라고 하는 어려운 見解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나 정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見解중 일부만을 알아 보는 일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 Ⅱ.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說明과 豫測

### 1. 「說明」의 意味와 論爭<sup>1)</sup>

社會科學의 전문화된 학문활동에 있어서 「說明」(explanation)이라는 용어가 日常적으로 쓰일때와는 달리 독특한 用例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꺼리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社會科學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채택하는 基本假定이나 信念體系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꺼리가 되고 論爭꺼리가 되어 왔다.

日常적인 對話에 있어서 「說明」이라 함은 對話者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말이나 주장의 뜻을 풀어서 납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對話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 理解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科學哲學者들이 말하는 「說明」이란 어떤 現象이나 事象의 發生의 근거를 밝혀내는 論證(argument)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하는 「說明」이란 관찰된 事件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對話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한 의미풀이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事件이 發生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法則과 條件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건이 논리적으로 導出

1) 이하 「社會科學說明의 特殊性에 관한 主張」까지의 논의는 拙著, 『社會科學研究的 論理』(서울: 博英社, 1981), 第4章의 관련 部分은 간추려서 이간의 論議의 출발 點으로 삼고 있다.

될 수 있도록 논증하는 것을 「說明」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說明」이라는 사회과학의 학문상의 用例와 日常生活의 對話에서의 用例間에 차이가 있어서 논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者들의 基本前提의 차이 때문에 論爭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을 크게 나눈다면, 하나는 「說明」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社會科學이 대상으로 하는 現象에 관한 설명은 一部科學哲學者들이 주장하는 演繹的-法則的 說明論證의 形式이나 要件을 따를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科學哲學者들과 哲學的 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說明」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된 것이거나 불필요하고 社會科學에서 더 중요한 것은 解釋에 의한 對話者間의 理解와 批判에 의한 解放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의 논쟁을 理解하려면 우선 一部科學哲學者들이 주장하는 說明論證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2. 說明論證<sup>2)</sup>

Carl G. Hempel이 주장한 이래로 과학적 설명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 논증형식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 (1) 構成要素

하나의 완전한 설명논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첫째 설명하고자 하는 事象(events)을 묘사하는 서술 또는 言明 : E

둘째 事象 E에 선행하거나 또는 병행하여 발생하는 조건에 관한 언명 :  $C_1, C_2, \dots, C_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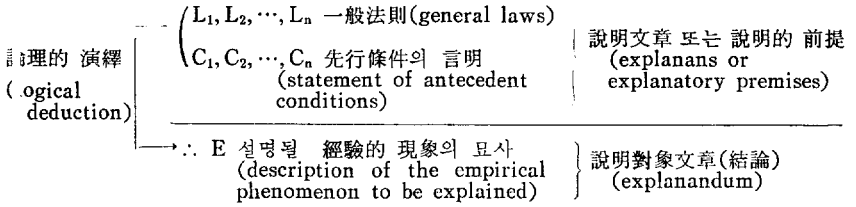
셋째 C와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 E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일반론 또는 法則 :  $L_1, L_2, \dots, L_n$

이와 같은 구성요소는 설명에서 사용하는 서술이나 언명들의 종류를 간추려서 도식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장황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 (2) 論證形式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구성요소는 설명논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形式으로 연결된다.

(2) 앞의 拙著에서 자세히 다룬 內容이므로 여기서는 그 요지만을 간단히 적기로 한다.



### (3) 條件

위와 같은 說明論證의 形式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첫째, 설명논증을 위해서는 일반법칙과 조건에 관한 언명이 있어야 된다.

둘째, 결론으로서의 經驗的 現象에 관한 묘사(E)는 法則(L)과 條件(C)이라는 두가지 구성요소로 부터 도출된 것이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 부터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언명들은 경험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넷째, 언명들은 진실이어야 한다.

### 3. 豫測 : 說明과 豫測의 構造同一性命題

說明論證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성요소, 형식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豫測(prediction)에 관한 논증도 說明論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說明이 가능하면 豫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sup>3)</sup> 다만 說明과 豫測의 차이점은 연구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說明된 現象의 전제로서의 법칙과 조건을 찾아내서 논증하는 것이 설명이며 법칙과 조건을 먼저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예측이다.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前提와 結論間의 시간적인 선후관계의 차이에 따라 설명과 예측이 달라질 뿐, 그 논증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 1. 演繹的-法則的 說明的 결정성

이상에서 요약한 설명방식을 演繹的-法則的 說明(deductive-nomological explan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논증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설명방식이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前提로서의 法則과 條件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도 타당한 것으로

3) 여기에 대한 異論이 있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므로 생략함.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설명방식은 前提와 結論間에 同語反復的(tautological)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5. 社會科學 說明類型의 特殊性에 관한 見解

演繹的-法則的 說明論證方法에 관한 異論도 많다. 그중 하나는 社會科學研究의 목표가 現象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理解와 批判에 있기 때문에 설명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 용도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견해가 바로 本稿에서 절충해 보고자 하는 견해들로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른 하나는 社會科學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설명과 예측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社會科學은 그 연구대상의 특성상, 연역적-법칙적 설명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바로 이런 주장이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 가려는 부분이다.

이렇게 사회과학 설명유형의 특수성이라고 주장되는 것을 몇가지만 보면, 發生論的 說明(genetic explanation), 性向論的 說明(dispositional explanation), 意圖에 의한 說明(intentional explanation), 그리고 하나의 目的原因論(teleological explanation)으로서의 自己規制的 體制에 관한 설명 또는 機能主義 說明(functional explanation) 등이 있다.

#### (1) 發生論

발생론적 설명은 일종의 역사적 발전단계설에 관한 설명방식으로서 어떤 설명대상의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종국적 상태까지 몇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단계들간의 연결을 演繹的-法則的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와 같은 난점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단계의 연결을 하나의 法則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決定的 法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契機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단계가 원인이 되어 다음 단계로 이어지려면 그에 관련된 법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묘사를 필요로 한다. 이렇듯 發生論的 說明에 있어서는 연역적-법칙적 설명방식을 엄격하게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회과학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부당한 견해라는 것이다.

#### (2) 性向的 說明

性向(disposition)이란 對象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일정한 경향을 말한다.

그런데 社會的 行態의 설명에 있어서는 行爲者나 集團이 가지고 있는 性向을 근거로 하여 그 行動을 설명한다. 이때 性向을 前提로 삼고 行動을 結論으로 삼아서 설명하는 것인데, 연역적-법칙 설명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설명방식은 前提속에서 一般法則과 條件을 명시하지 않는 한, 不完全한 설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반하여 社會科學者들은 性向에 의한 설명도 사회과학의 특수상 완전한 설명방식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意圖에 의한 說明

性向論的 說明이 行爲者의 의도보다도 外形的이고 객관적인 자극과 반응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意圖에 의한 설명은 行爲者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 등,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meaning)를 중요한 설명적 전제로 삼는 것이다. 이 논쟁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우리가 알아 보게 될 「해석」이나 「이해」의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겠는데, 科學哲學者와 社會科學者 사이의 논쟁의 초점은 人間行動에 있어서 行爲者의 意圖, 目的 또는 의미를 설명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 (4) 自己規制的 體制

社會體制에 관한 說明에 있어서, 하나의 體制는 어떤 일정한 狀態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 처럼 가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體制가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찾아서 움직여 가는 듯이 가정하는 설명방식이다. 이 때 이와 같은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마치 어떤 目的을 향하여 나가는 것 처럼 말하기 때문에 目的論的(teleologica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體制는 일정한 목적을 어떤 原因 때문에 指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설명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演繹的-法則的인 논증으로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격한 설명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이고, 그 자체가 독특한 설명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견해인 것이다.

## Ⅲ. 「科學的 說明」의 限界에 대한 見解

앞에서는 科學的 說明方式에 있어서 연역적-법칙적 설명증명방식을 둘러싼 견해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중에는 社會科學 說明類型의 특수성이 관한 주장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바로 앞에서 검토하였다. 그런데 社會科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理解」와 「批判」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 「科學的 說明」의 시각 자체가 편향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本稿는 설명·해석·비판 중에서 무엇이 더 옳고 그르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따져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行政現象에 관하여 어느 경우에 설명·해석·비판이 有用한가에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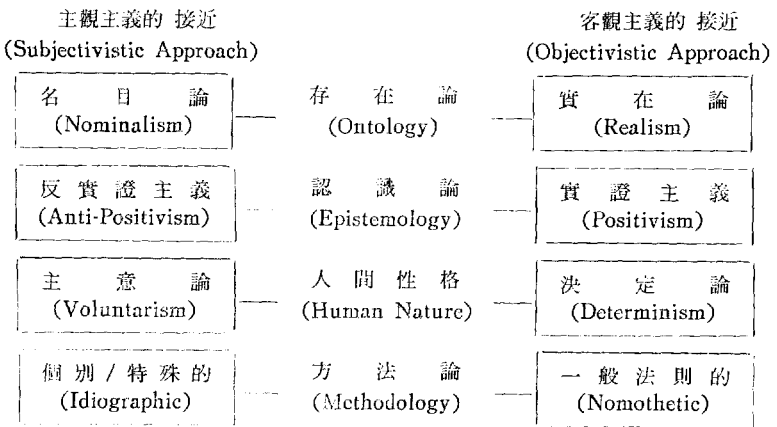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豫備的 考察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社會科學의 성격과 paradigm의 類型」에 관한 견해로 부차 그 실마리를 끌어 내고 「說明—解釋—批判」을 「部分—脈絡—上位脈絡」간의 관계로 놓고 과학함으로써 절충과 수용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1. 社會科學의 性格과 paradigm의 類型<sup>1)</sup>

(1) 社會科學의 性格에 관한 論爭

社會科學의 對象이 어떤 모습으로 存在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假定이 있을 수 있다. Gibson Burrell과 Gareth Morgan은 <그림 1>과 같이 이와 같은 가정들을 주관주의적 접근과 객관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對比시키고 있는데 本稿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비교인 것 같다.

<그림 1> 社會科學의 性格에 관한 假定



出處: Burrell and Morgan, *op. cit.*, p. 3.

① 存在論的 論爭: 名目論 對 實在論

구선 爭點이 되는 것은 사회과학자가 연구하는 「社會的 現實」이라는 것이 「存在 하느냐에 관한 견해의 차이이다. 「名目論」의 입장에서는 社會라는 것이 존

1) 이 部分은 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 1979)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린 것이다.

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관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지칭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이와 반하여 「實在論」의 견해는, 個人意識의 外部에 있는 社會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存在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거나 말았거나 그에 社會現象은 經驗的 事實(empirical facts)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② 認識論的 論爭：反實證主義 對 實證主義

實證主義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논리적·실증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價値와 事實이 구별되고, 科學的 知識은 沒價値的(value-free)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反實證主義」에서는 과학적 지식만이 지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知識이란 반드시 실증적 근거를 가질 필요도 없으며, 價値와 事實은 구별될 수 없고, 모든 지식은 가치에 관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③ 人間性格에 관한 論爭：主意論 對 決定論

이것은 사회과학 이론에 반영된 「人間型」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決定論에서는, 人間의 行動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 또는 환경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主意論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自律的이고 自由意志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 ④ 方法論的 論爭：個別·特殊的 理論 對 一般法則的 理論

사회과학연구의 個別·特殊的 접근방법은 연구대상에 관한 직접적 「體驗的」인 지식을 가져야만 社會關係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며, 행동하는 사람의 「內面世界」에 들어가서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려는 연구태도를 갖는다. 이때 個人的 日記와 傳記 등은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된다.

一般法則的 접근방법은 연구절차의 체계성과 엄격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연구자료의 分析과 檢證節次에 일정한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方法論에서는 사회조사, 설문조사, 인성조사 및 그 밖의 여러가지 표준화된 연구방법이 사용되며 일반적·보편적 지식을 추구한다.

#### (2) 社會의 性格에 관한 假定

社會의 특징은 「秩序」인가 아니면 「葛藤」인가 하는 것도 논쟁거리인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規制(regulation)를 강조하는 입장과 急進的 變動(radical change)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간단히 대비시킨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規制와 急進的 變動의 局面

規制를 강조하는 理論의 관심	急進的 變動을 강조하는 理論의 관심
(a) 現狀維持	(a) 急進的 變動
(b) 社會秩序	(b) 構造的 葛藤
(c) 合 意	(c) 支配의 樣式
(d) 社會統合과 凝集	(d) 矛 盾
(e) 團 合	(e) 解 放
(f) 欲求充足	(f) 剝 奪
(g) 實現性	(g) 潛 在 性

出處 : Burrell and Morgan, *op. cit.*, p. 18.

(3) 社會科學理論의 類型

앞에서는 社會科學의 성격에 관한 가정들을 크게 主觀主義的 國면과 客觀主義的 國면으로 나누어 보았고 社會의 성격에 관한 가정도 規制를 강조하는 理論的 관심과 급진적 변동을 강조하는 理論的 관심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상의 두가지 國면들을 결합시켜 보면 〈그림 3〉과 같이 社會科學理論들을 4개의 paradigm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파라다임」으로 분류되는 이론들도 다양한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社會科學理論의 4가지 paradigm

		社會科學의 성격에 관한 假定	
		主觀主義的	客觀主義的
社會의 성격에 관한 假定	急進的 變動	無政府的 個人主義 프랑스 實存主義 批判理論 3. 急進人間主義論	現代 「지중해」 러시아 社會理論 마르크스理論 葛藤理論 4. 急進構造主義論
	規 制	2. 解釋的 理論 現象學 解釋學 現象學的 社會學	1. 機能主義 理論 社會體制理論 統合的 理論 客觀主義 相互作用論 및 社會行爲 理論

出處 : Burrell and Morgan, *op. cit.*, p. 29.

(1) 機能主義 파라다임

이기에 속하는 理論들은 安定된 社會秩序와 規制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객관주의적 접근방법을 결합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學者

들의 주요 관심은 現狀維持, 社會秩序, 合意, 社會統合, 團合, 欲求充足 등에 관하여 說明하고 豫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는 조직이나 사회니 하는 것들이 實在한다고 믿고 實證的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人間行動의 因果關係는 뚜렷하게 一般法則化해서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② 解學的 패러다임

이러한 理論들도 규제속의 점진적인 사회변동을 가정하고 있으나 그 접근방법은 主觀主義的이다. 이들은 社會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解釋理論들의 입장에서는 「社會的 現實」의 존재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식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人間은 얼마든지 自律的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社會」는 個人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낸 「生成的」(emergent) 사회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社會的 現實이라는 것은 비록 어떤 特定個人의 意識 밖에서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個人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共有하고 있는 意味의 連結網<sup>o</sup> 불과하다는 것이다.

## ③ 急進人間主義 패러다임

이것은 主觀主義的 견지에서 급진적인 변동에 관심을 두는 이론들이다. 社會科學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解釋的 패러다임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석학적인 것과 다른 점은 기존의 社會關係를 뒤엎거나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準據틀(frame of referenc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見解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중의 하나는, 人間은 자기가 상호작용하는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의 支配를 받고 있어서 그것이 人間自身과 자기의 진정한 意識間에 「認知的 썬기」(cognitive wedge)를 박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썬기는 「疎外」 또는 「虛僞意識」이라는 썬기로서, 人間の 成就를 억제하거나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理論의 관심은 人間을 그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되고 現狀에 대하여 비판하게 된다. 즉 그들이 크게 강조하는 것은 급진적 변동, 支配의 樣式, 解放, 剝奪 및 潛在性 등이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문제는 구조주의에서 더 많이 다루고 인간주의 자체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④ 急進構造主義 파라다임

이러한 理論들은 객관주의적 견지에서 급진적 변동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科學에 대한 생각에는 機能主義의 생각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급진적 구조주의 이론은 構造的 葛藤, 支配樣式, 矛盾과 剝奪 등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급진적 변동, 解放 및 潛在性(latency)에 의한 全體的 轉換(total transformation)의 실현에 獻身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社會的 現實의 實在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實證主義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人間行態에 관한 決定論을 받아들이고 方法論上으로 一般法則을 추구한다.

## 2. 部分—脈絡—上位脈絡間的 관계

앞에서는 社會科學理論의 4가지 유형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假定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機能主義理論들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說明方式을 더 따르고 解釋理論에서는 해석과 이해를 더 중요시하며 批判理論은 비판에 역점을 둔다. 그리고 급진구조주의 이론은 설명과 비판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설명 해석 비판중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 해석 비판을 하나의 학문 체계에서 절충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고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러한 절충을 試圖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마리는 說明—解釋—批判간의 관계를 部分—脈絡—上位脈絡間的 관계로 놓고 볼 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知識과 關心」이니 또는 지식의 3단계 또는 의식의 3단계니 하는 思考의 체제들을 부분—맥락—상위맥락간의 관계로 이해하여 보고 나서 더 구체적인 例의 하나로서 Alford와 Friedland의 國家論에서 사용하는 分析의 水鏡과 視角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知識과 關心

Jürgen Habermas는 知識과 關心(Knowledge and Interest, 利害關係)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그의 주장은 매우 난삽한데 그 요지는 人間

5) Jürgen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 Translated by Jeremy J. Shapirs(Boston: Beacon Press, 1971) 참조.

또는 연구자의 關心에 따라서 知識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人間의 관심은 「現象」의 統制, 人間사이의 의사소통이나 對話 그리고 社會制度나 지배양식으로 부터의 解放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지식추구의 방법이 달라진다.

現象의 統制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객관적으로 형성된 法則과 條件으로 부터 경험적 사실을 豫測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통하여 현상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法則的 설명방식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은 人間이 바로 자연현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自然科學의 方法論을 社會科學의 연구에 있어서 적용하게 되면 결국 人間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人間이 사회현상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社會的 現實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支配樣式을 영속화시키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통제지향적이기 때문에 지식대상이 객관적인 것이 되고 설명과 예측에 적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人間の 對話나 의사소통 및 역사의 이해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현상을 객관적 실체로 놓고 파악할 수 없으며 行爲者가 자신의 行動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즉 對話的 關心에서는 解釋에 의해서만이 사회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研究者의 關心이 社會制度나 구조 등의 自己解放(self-emancipation)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나 관행의 모순이나 갈등에 대한 批判을 통하여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역사적·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왜곡된 社會關係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관계로 놓고 거기에서 一般法則을 찾아 說明하고 豫測하여 통제하는 것은 결국 歪曲된 구조적 모순만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으로 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說明과 豫測이 부당하거나 소용이 없고 비판을 통하여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한 해방은 정신분석학적 치료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의 정신적 장애는 정신분석적 相談을 통하여 과거에 억압되었던 自我的 일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같은 發見이 현재의 정신적 장애로 부터 해방 즉 치료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사회적 모순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2) 部分—脈絡—上位脈絡간의 관계

위와 같은 見解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견해이기 때문에 몇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것을 지식이나 意識水準의 三段階라는 思考의 體系 속에 담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sup>

이것은 일종의 階層的 思考인데, 知識의 체계화도 部分(bits), 脈絡(context) 그리고 上位脈絡(meta-context)이라는 3단계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部分的 知識은 단편적인 정보나 자료이고 脈絡的 지식은 단편적 지식들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틀이며 上位脈絡的 지식은 맥락들을 연결시켜 주는 틀이다.

이때 部分이 좋은 것이나 脈絡이 좋은 것이나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部分的 지식들은 체계성이 약한 반면에 여러가지로 再構成 및 결합하여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고 해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脈絡的 지식들은 체계성이 높아서 準據의 틀로 사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그와 같은 틀 속에 묶여 있는 지식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해신을 제약할 수도 있다.

## ① 知識과 統制水準의 3단계

위와 같은 계층적 사고의 예를 들면 Y. Dror가 말하는 지식과 통제수준의 3단계이다.<sup>7)</sup>

첫째는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과 통제로서 비교적 많이 발달되어 있다.

둘째는 사회와 인간에 관한 지식과 통제인데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셋째는 위에서 말하는 「統制」에 관한 지식과 통제로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식수준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각각 實質政策(substantive policy), 綜合政策(mega-policy) 그리고 上位政策(mata-policy)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각각 道具的 統制, 人間사이의 對話를 위한 해석과 이해 그리고 사회체제나 제도의 비판적 자기반성에 의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② 意識水準의 3단계

계층적 사고의 또 하나의 예를 들면 Amitai Etzioni는 意識水準에 관하여 다

6) Habermas의 위와 같은 見解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Russell Keat, *The Politics of Social Theory: Habermas, Freud and the Critique of Positivism*(Oxfor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7) Yehezkel Dror, *Ventures in Policy Sciences: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 Co., 1971), pp.9-10. 이 部分은 拙著, 前著서, pp. 151-152에 정리되어 있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8)</sup>

첫째 환경에 관한 의식

둘째 自我에 관한 의식

세째 統制層(controlling overlayer)에 관한 의식

社會的 行動主體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간의 관계를 보면, 환경의식 수준에  
만 머물 수는 있으나 自我意識수준에 이르렀으면 그는 이미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統制層에 관한 의식수준에 이르렀으면 환경과 자아 양자에 관한  
意識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의 같은 階層的 思考體系에서 볼 때 「설명—해석—비판」간의 관계도 「부분  
맥락—상위맥락」의 관계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社會現象이나  
사회관계의 연구에 있어서 설명 해석 비판을 전혀 별개의 대립되는 입장이나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각각 그 나름대로 잘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상위수준  
의 脈系을 이해하면 下位水準에서의 說明과 豫測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매우 단순화된 예를 가상하여 보더라도 한 사람의 근로자의 행태나 행  
동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 맥락간의 연결은 행태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즉 한 個人이 자본주의사회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맥락을 알게 되면 그와 다른 맥락을 가진 근로자(가령 군대의 사병)와 비교하여  
그의 행태에 관한 「설명」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分析의 水準」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國家論의 한 예를 참고로  
하여 분석수준과 視角間的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 (3) 分析의 水準과 視角

Alford와 Friedland는 “Powers of Theory”라는 책에서 우리의 논의전개를 위  
하여 매우 도움이 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9)</sup>

Alford와 Friedland에 의하면 國家理論의 다양한 視角들은 세가지로 크게 묶  
을 수 있으며 각 視角마다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가지의 視角이란 多元主義的(pluralistic), 管理主義的(managerial) 그리고  
신계급주의적(neo-class) 시각들을 말한다.

8)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al Processes*(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34-235.

9) Robert R. Alford and Roger Friedland, *Powers of Theory: Capitalism, the Stat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그림 4〉 分析의 水準과 視角

水準 \ 視角	多元主義 (Pluralistic)	管理主義 (Managerial)	階級 (Class)
個人 (Individual)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대중, 고객, 구 성원, 엘리트의 일부	계급의 대리인
組織 (Organizational)	결사	관료구조	계급이익의 대리자
汎社會 (Societal)	근대화, 사회구조, 문화	산업사회, 제도적 영역	사회형성, 세계경제, 정치경제

出處 : Alford and Friedland, *op. cit.* 여러 부문에서 재구성.

### ① 固有領域(home domain)

「고유영역」이라는 것은 각 시각이 잘 다룰 수 있는 영역 또는 각 시각에 따라 잘 보이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상용되고 있다.

다원주의는 개인수준에 부합되고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권리주의는 조직수준에 부합되고 관료구조가 주요 관심대상이다. 그리고 계급주의의 분석수준은 汎社會이며 주요관심은 사회의 형성, 세계경제체제 그리고 정치경제의 동태 등이다.

### ② 階層으로서의 分析水準과 視角

分析의 視角마다 固有領域이 있기 때문에 각 시각은 자체의 고유영역에서는 중요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겠으나 타 영역에 관해서는 보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多元主義는 個人을 分析水準으로 삼고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고유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管理主義는 이와 같은 개인들을 대중, 정부 또는 기업의 고객이나 구성원, 그리고 엘리트의 일부라는 식으로 파악한다. 또한 계급주의는 개인들을 階級の 代理人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시각마다 개인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管理主義는 조직수준에서 「관료구조」를 주요 이론적 대상으로 삼는데, 多元主義가 보는 관료구조는 「결사」중의 하나이고, 階級主義가 보는 관료구조는 계급이익의 대리자이다.

階級主義의 고유영역인 汎社會의 水準의 정치경제적인 체제적 특성들이 管理主義에서 볼 때에는 産業化이고 다원주의에서 볼 때에는 近代化이다.

하나의 視角의 고유영역에 적합한 理論體系를 다른 視角의 고유영역에 적합한 理論體系와 종합 또는 통합시킬 수 있는가? Alford와 Friedland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多元主義는 증거의 세계이고 管理主義는 일종의 paradigm의 세계이며 階級主義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眞理」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難點」에서 說明・解釋・批判間的 관계에 관한 시사를 받는다. 즉 分析의 水準들과 分析의 視角들을 계층적으로 놓고 보면 모두가 맥락의 체계가 될 수 있다. 個人—組織—汎社會는 部分—脈絡—上位脈絡이라고 할 수 있으며 多元—管理—階級도 部分—맥락—상위맥락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個人水準의 多元主義視角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은 전체사회와 조직과의 관계에서 볼 때 「部分」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들 사이에서 발견되거나 정립된 一理論이나 法則에 따라 個人行態나 組織動態 등을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個人들간의 相互作用」이라고 하는 外見上 다분히 中立的으로 보이는 내용도 管理主義에서 볼 때는 대중이나 고객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듯 고객이나 대중으로 보는 것은 「官僚構造」라는 脈絡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組織水準과 管理的 視角이 다원주의적 개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脈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脈絡이라는 것은 단순히 分析하고 일반론을 찾아내어 現象을 설명하고 豫測하는 것 만으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남음이 가는 것이다. 이렇듯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조직수준의 현상을 이해하려면 「解釋」이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論旨를 따른다면 汎社會水準과 階級的 視角은 다원주의적 개인과 관리주의적 관료구조에 대하여 上位脈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上位脈絡의 계층에서는 경험적 자료수집 등에 의한 說明이나 脈絡의 해석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이 스스로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고 自體轉換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 IV. 說明・解釋・批判

##### 1. 再構成에 의한 절충과 수용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간추려서 정리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論者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으나 行政現



〈그림 5〉 說明, 解釋, 批判

基準 知識次元 脈絡		설 명	해 석	비 판
		부 분	맥 락	상 위 맥 락
國家論의 例	분석수준	개 인	조 직	범 사회
	시 각	다원주의	관리주의	네오-마르크스 (계급주의)
	진 리	경험적 증거	파라다임적 체계	비판이데올로기
대 상 계 층		사회의 여러 국면	복합적 구조의 측면	범사회적 전체성의 제도적 논리
지식추구의 관심 영역		객관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자극-반응이나 인과관계의 입장에서 관찰, 일반화, 이론 구성 및 설명과 예측	사회관계를 아래와 같은 입장에서 해석, 이해, 구성 및 재구성 : 기능주의 현상학  언어 해석학	기본규칙이나 상위규칙의 사전이해와 사전가정 : 체제욕구와 만족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경험의 맥락 언어규칙, 문법 규범 : 자신 및 다른 문화의 전통의 맥락과 규범

주 : 앞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임.

象의 說明·解釋·批判에 관심이 있는 筆者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설명·해석·비판을 同一次元에 놓고 유용성을 따질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각각 知識追求의 상이한 차원을 다루는 것으로 본다. 다면 큰 무리없이 절충이 되는 것 같다. 즉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전체적인 研究對象에 있어서 部分的 次元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說明이고 脈絡의 차원의 이해에 적합한 것이 解釋이며 上位脈絡의 차원에서의 기본가정의 검토에 적합한 것이 批判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앞에서 고찰한 國家論의 例를 보더라도 개인들의 상호작용관계의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여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진리를 정립하는 것이 설명이라고 한다면 조직구조의 파라다임적 체계를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범사회적인 체제적 특성의 근본원리에 관한 기본가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見地에서는 部分的 증거에 의하여 구조적 체계를 입증할 수 없고, 체제적 특성의 근본가정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

10) 이 같은 해석학이나 비판이론의 내용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보는 수준에서만 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나 근본가정의 비판에 의하여 밝혀진 체제적 특성은 구조적 맥락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部分的 次元의 說明對象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국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상위맥락은 계급주의가 마련해 주어야 하고 맥락은 관리주의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양문화권의 국가이론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위맥락 및 맥락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국가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기명·해석·비판은 지식추구에 있어서의 관심영역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批判的 次元은 사회나 국가 또는 행정체제의 전체로서의 제도적 논리의 타락과 비판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제도의 기본 가정을 밝히는 것이다. 解釋的 次元은 기본 가정하에서 성립된 구조적 문제의 이해, 구성 및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說明的 次元은 기본가정과 구조적 관계의 이해 속에서 기립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들의 일반화된(generalized)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sup>11)</sup>

## 2. 行政學 研究에 있어서의 說明 解釋 批判

### (1) 研究의 志向問題

行政學 研究의 志向을 規範的 志向, 經驗的 志向 그리고 實踐的 志向으로 大別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여러번 언급하였다. 規範的 志向은 行政現象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秩序」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서 正義, 公共善, 合理性 등에 입각한 秩序에 관하여 제안하려는 것이다. 經驗的 志向은 行政現象을 「있는 그대로의 秩序」로 파악해 보려는 입장이다. 그리고 實踐的 志向은 「있어야 되는 秩序」를 目的으로 삼고, 「있는 秩序」를 手段으로 삼아서 「있을 수 있는 秩序」를 실현시키고자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2) 實踐으로서의 「政策」

行政學 研究의 志向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傳統的 科學觀」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本稿의 目的에 따라서 그것들을 약간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實踐으로서의 政策」을 準據로 삼아서 논의할 수

11 여기서 말하는 부분-맥락-상위맥락은 지식이라는 정보의 차원이기도 하다.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경험적자료, 모형으로 연결된 자료 및 판단적 근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John W. Sutherland, *A General Systems Philosophy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3) 참조.

있을 것 같다.

위의 論旨에 따른다면 「政策」은 目的과 手段의 연결인데 目的은 規範의 근거에서 제안되고 手段은 經驗的인 「因果關係의 知識에 관한 假定」이다. 이와 같은 目的과 手段間의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政策」은 社會再構成을 위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령계 본다면 規範으로서의 目的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批判」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社會再構成으로서의 政策形成에 있어서는 반드시 既存의 價値體系에 구속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制度의 慣行이 만들어 놓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社會秩序를 만들어 내려면 과거의 사고의 틀이나 기본규범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이와 같은 비판과 「해방」이 과격한 폭력수단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手段으로서의 因果關係는 說明되고 豫測될 수 있어야만 그야말로 「統制」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政策 그 자체는 社會關係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어떤 脈絡下에서 目的과 手段關係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政策의 맥락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자유로운 對話狀況」<sup>12)</sup>下에서 구성하고 재구성(reconstruct)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V. 結 語

이 글은 行政學 研究에 있어서 行政現象의 說明・解釋・批判을 어떻게 절충하여 수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試論으로 解釋學이나 批判理論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거나 논의하는 글은 아니다.

전통적인 行政學은 주류사회과학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에 대한 외국학계의 비판과 대안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주류사회과학방법론을 준거점으로 삼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방법론을 버려야만 새로운 방

12) Habermas와 같은 학자들이 「자유로운 對話狀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3) Egon G. Guba and Yvonna S.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9) 제 3장에서 전통적 파라다임과 「Constructivist Paradigm」을 對比시키고 있는데 후자는 해석학의 가정을 따르고 있다.

법론(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통이 더 오래된 것들이지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說明과 豫測」과 관련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즉 說明—解釋—批判을 部分—脈絡—上位脈絡間的 관계로 對應시키고 나서 비판을 통한 상위맥락의 정립은 실천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정책목표설정에 크게 이바지하며 說明과 豫測을 통한 因果關係에 관한 일반화된 知識이 手段을 제공해 주는데 目標(的)와 手段을 연결시키는 것은 解釋과 理解 및 再構成을 통한 脈絡의 제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과 입장을 달리하는 방법론들이지만 행정학의 정책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호 절충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